

# 철저한 차단방역으로 HPAI의 국내 유입 원천 봉쇄해야...



본지 김한웅 부장

홍콩 보건당국은 란타우섬 첵랍콕 공항 부근 해안에서 발견된 AI(H5N1) 감염 오리 및 거위가 홍콩에서 사육된 것이 아니며 중국 광둥성에서 주장(珠江)의 강물과 조류를 타고 홍콩 해변으로 휩쓸려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광둥성 당국에 HPAI 바이러스 추적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미 중국은 HPAI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 일대 비상이 걸렸다.

우리나라로서도 결코 방관하고만 있을 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 중국과 인접해있는 우리로서는 언제 어떤 유입경로를 통해 홍콩과 같이 HPAI가 국내로 유입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가끔 관련인 모두가 긴장하고 차단방역에 한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외출타기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외 경기가 급속도로 위축돼가고 있는데 가계소비의 긴축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초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이다.

국제 사료곡물가격 및 사료운송운임의 폭등을 비롯하여 유류가격 인상 등이 전방위로 우리 육계 및 닭고기 업체를 압박하는 가운데 연말연시, 설 연휴 등과 겹치면서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 버렸다.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닭고기의 연말연시 수요와 함께 급작스런 한파로 인해 전체 공급물량이 감소하면서 육계 산지가격이 그나마 유지되어 준 것이 위안이라면 위안이라고 생각해 본다.

---

육계가격의 kg당 2천원대 가격 붕괴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형성을 뜻하게 되는 것으로 닭고기  
업계의 어려움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

하지만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항상 좌불안석(坐不安席)인 것이 우리 업계의 현실이다. 생각보다 조금은 입지가 나아졌다고는 하나 인상될 대로 인상된 원자재가격이 고스란히 반영된 생산비를 생각하면 이마저도 썩 유쾌한 것은 아닐 성싶기 때문이다.

더욱이 2월로 들어서면서 육계가격이 kg당 1천6백원선 이하에 형성되는 등 육계가격이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국제 사료곡물가격의 하락 분이나 운임 등이 국내 배합사료가격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료회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올해 3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따라서 육계가격의 kg당 2천원대 가격 붕괴는 생산비 이하의 가격형성을 뜻하게 되는 것으로 닭고기 업계의 어려움을 예상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또한 올해 들어 병아리 입식물량이 지난해 12월 대비 1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

됨에 따라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육계산지가격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하락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도 업계의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업계의 위기상황에 대비해 모두가 이를 헤쳐나갈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그 방안 역시 결코 녹록치는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로서는 닭고기 소비가 근근히 유지되면서 실물경기가 되살아나 자연스럽게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닭고기 업계가 바라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이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HPAI가 발생한다면 업계가 다시 희생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는다.

정책당국에서도 사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AI 예찰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 닭고기 업계 스스로 조심하고 긴장을 늦추지 않는 방법만이 우리 업계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이다. 